

“이동노동자, 쉬어가면 힘이 나주~” 나주 쉼터 인기

지난 13일 문 열어...약 38평 규모로 휴게실 내 안마의자 등 갖춰 오전 10시~새벽 2시 운영...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반응 뜨거워

“한겨울과 한여름에 몸을 피할 곳이 없어 곤혹스러웠는데 간절히 원하던 휴식공간이 생겨 기쁘다.”

19일 오후 2시께 찾은 나주시 빛가람동 ‘이동노동자 쉼터’ 이날 찾은 쉼터 안의 배달음식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5명이 각자 안마의자와 TV 앞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 곳에서 만난 2년 차 배달음식 라이더 지성상(50)씨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생겨 자주 찾고 있다”며 “과거엔 동네 편의점 앞에서 ‘쿨’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쉼터에서는 쪽집게를 잘 수도 있고,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편하게 쉴 수 있어 주변 기사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빛가람혁신도시에 문을 연 ‘이동노동자 쉼터’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배달음식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이동노동자들은 일감이 없는 경우 편의점을 전전하거나 길거리를 배회해야 했는데, 각종 편의장비를 갖춘 쉼터가 생겨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힘이나주~’라는 이름의 나주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125㎡(약 38평) 규모로 휴게실과 회의실, 여성휴게실 등으로 구성됐다.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모(헬멧) 건조기, 라커룸, 방난방기, TV, 냉장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뿐만 아니라, 안마의자와 혈압측정기 등 건강 보조 기기 등도 갖췄다.

조명과 전자기기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IoT시설관리시스템이 적용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혁신도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지난 1월 8일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지난 13일 정식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1월에는 쉼터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횟수가 월 평균 46회에 그쳤지만, 정식 개소한 이달에는 이용횟수가 6배 이상 뛰어 303회를 기록했다.

‘힘이나주~’ 쉼터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플랫폼중소사 일터 개선사업’을 통해, 대리운



19일 나주시 빛가람동 ‘힘이나주~’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음식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TV시청 및 안마의자 이용 등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전, 음식배달, 킥 서비스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도시 권역에만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나주에도 생기면서 지역 내 이동노동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이 곳에서 만난 배달기사 A(38)씨는 “쉼터가 생겼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기사들이 많다”며

“몇몇 친분이 있는 배달기사들은 쉼터에서 함께 휴게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다만 배달기사들은 쉼터에 쉬기 위해서 오는데 회의실 등의 시설보다는 잠시라도 몸을 누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주 7일 무인 체계로 운영되

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사전에 지문등록이 된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지문 인식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

쉼터는 기본적으로 무인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많은 이동노동자들이 지문등록을 하지 못한 운영 초기에는 나주시청 소속 쉼터 관리자가 쉼터에 상주하며 지문등록을 도울 계획이다.

쉼터 관리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쉼터에 상주하며 이동노동자들의 쉼터 출입을 위한 지문등록을 지원한다.

다만, 나주시는 근무 시간이 상이한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오는 4월 3일까지는 오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야간에도 쉼터 관리자를 두고 야간 지문등록 기간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사전에 지문등록이 된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지문 인식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

나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에 대한 문의는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39-88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데이터기반행정’ 최고등급 획득

행안부, 우수 평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운영실태 전반을 평가하며, 공공데이터의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등 5개 영역으로 진행됐다.

한전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적극 개방하고 활용을 지원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5개 영역에서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전은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인 ‘데이터안심구역’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지정받고, 데이터를 적극 공개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한전이 제공한 데이터는 민간에서 수요반응 시장 참여, 대용량 고객 에너지 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 발전예측 서비스, 전기요금납부 기반 신용평가모델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업무 및 정책에 활용하는 행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공공부문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데이터 분석 ▲데이터 역

량 강화 및 문화 조성 등 4개 분야로 진행됐다.

한전은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을 선도해 사내외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과제를 수행해 왔다.

특히 직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분석 경진대회 개최 및 사내외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개설 등 데이터기반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력 생태계 발전과 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PS,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



스트레스 진단·심리 상담 등

한전KPS는 구성원들의 심리진단 및 치료를 통해 회사 안팎으로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 대상자에는 한전KPS 직원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과 지회사 및 협력사 재직자까지 포함된다.

한전KPS는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을 2020년 도입해 올해까지 5년째 연속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전KPS가 직장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IT기반 심리 솔루션 제공 전문기업인 이지엔웰니스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스트레스 진단 ▲전문가 대면·화상·전화 등 개인 심리건강 개별상담 ▲집단 심리 건강상담 및 치유 교실 운영 ▲마음건강 예방 교실 등 수요에 알맞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들은 개인 심리진단 및 치유를 위해 직무 스트레스를 비롯해 개인적인 대인관계에서 유발되는 직장 내 갈등 또는 가족문제, 정서적 우울감·불안감 등 다양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심리 전문가와 함께 테라피, 명상,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조직 활성화를 이끌고, 마음건강 특강교실을 통해 집단상담과 신체활동, 팀워크 활동, 자살예방 교육 등을 통해 ‘정신 건강’을 단련하는 시간을 갖는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전KPS의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지회사와 협력사까지 참여대상을 넓히면서 외연을 확장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DN, 4개 유관기관과 지역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협약

한전KDN은 지난 14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KDN 본사에서 유관기관들과 ‘지역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전KDN과 전남대학교병원, 광주테크노파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가 주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헬스케어·자동차·에너지 등 3대 분야의 가명정보 활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KDN 등 4개 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 및 분석·활용 관련 기술 교류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정책과 기술발전을 위한 협력 ▲데이터·AI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사업 공동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같은 협력사업에 활용될 가명정보는 지난 2020년 8월 개정된 데이터 3법을 기준으로, 본인 동의없는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고 통계작성 및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장호성 한전KDN 미래디지털사업처장은 “한전KDN은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및 지역사회 상생에 기여하고 나아가 디지털경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DN은 지난 2021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 1호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돼,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9%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전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비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